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께서 읽으시는 본문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하여 이스마엘을 낳기까지 약10여 년의 기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처음 가나안에 도착 했을 때에는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이 있었던 것을 지난 시간에 살펴 보았습니다. 그러나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하나님께서는 기근 때문에 애굽에 가있던 아브라함을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가축과 은과 금을 풍부하게 가지고 돌아 올 수 있었습니다.

갈라디아서 3:8 에는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복음이 전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전해진 복음은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바로 이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전해진 복음인 것입니다.

여기서 '복음을 전하되'라는 헬라어 단어는 "프로유앙겔리조마이(προευαγγελιζομαι)"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미리, ~앞에"라는 의미의 프로(προ)라는 전치사와 "복음을 전하다"라는 의미의 유앙겔리조(ευαγγελιζω)라는 동사의 합성어로써 과거형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를 다시 정리 해서 말씀 드리면 "아브라함에게 미리 복음이 전해졌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언제 복음이 전해진 것일까요? 바로 오늘 읽는 본문을 중심으로 하는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전해진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이 기록된 창12장부터 시작하여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는 땅에 대한 약속과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만민이 복을 받으리라"는 자손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가나안 땅 벧엘 근처로 돌아 왔습니다. 이 곳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와서 처음으로 제단을 쌓았던 장소입니다. 이곳으로 돌아온 아브라함은 다시 한번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아브라함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 보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인생에 두 가지 측면

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는 일상의 삶의 측면입니다. 다시 말씀 드리면, 매일 매일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보고 듣고 먹고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애굽에서 많은 부를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 왔지만 그것이 계기가 되어 롯과 떨어져 살게 됩니다. 그리고 롯이 살던 지역에 전쟁이 있었고 그래서 롯이 잡혀가게 되었을 때 단까지 올라가서 롯을 구해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여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기도 합니다. 이러한 일들은 모두 아브라함의 일상에서 벌어지는 육신의 인생의 측면에서 일어나는 일들인 것입니다.

또 다른 측면은 영적인 측면입니다. 다른 말로 말씀을 드리면 주위에서 일어나는 일상의 일들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난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떠났습니다. 가나안 땅에 살게 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 때문입니다. 주위의 여건이나 형편을 고려하여 가나안으로 온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 온 것입니다.

롯은 소돔지역에 가서 살게 되었는데, 그 지역이 물이 넉넉하여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 지역에 가서 살면 앞으로 기근 따위는 걱정 없이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도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습니다. 이 곳이 약속의 땅이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보다 더 살기에 좋아 보이는 곳이 있었지만, 그래서 롯은 그곳으로 옮겨갔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 곳이다"라고 하시는 곳에 순종하여 사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 때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임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 '땅'과 '자손'에 대한 약속을 계속해서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아름다운 관계가 맺어 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 입니다.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각자의 일상의 삶을 살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아침에 뜨는 태양에 눈을 뜨고 하루를 살아 가듯이 우리 모두는 하루 하루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어느 방향으로 향하는 삶을 살 것인가 하는 문제는 우리의 영적인 측면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두에게 주어진 똑 같은 하루의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 안에 거하는 복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있는 사람은 그 분의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 안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곧 순종이요 순종이 곧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선하신 분임을 믿는다면 그 분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고 내 상식이나 경험으로 납득이 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분의 말씀이 선이고, 그 말씀이 선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도바울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자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자손이 오랜 시간 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이루어 졌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가장 정확하고 쉬운 길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입니다. 이 성경에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단순히 어떤 의견에 동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단순히 많은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나에게 주어진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믿음이 곧 순종이요 순종이 곧 믿음인 것입니다.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시작하여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분의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하여 그분의 약속 안에 거하는 오늘을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